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뉴스 수용자의 위기지각(risk perception)에 미치는 영향: 위기에 관한 수용자의 관여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양성관*

(동강대학 광고홍보학과 교수)

양성운**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USA 박사과정)

본 연구는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뉴스 수용자 개인의 특정 위기에 관한 지각을 형성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위기에 관한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뉴스 미디어간에 뉴스 미디어 신뢰도의 5가지 차원(신뢰성, 정확성, 공정성, 완전성, 비판향성)에 걸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테러에 관련된 정보처리를 위한 뉴스 미디어 사용 정도를 예측하는 다중회귀모형에서는, 뉴스 미디어 신뢰도와 관여도, 위기지각 등의 예측변수들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뉴스 미디어 자체의 특성만으로는 뉴스 미디어 사용 정도를 예측하기에 불충분하였고, 다른 예측변수들의 효과를 회귀모형 내에서 일정하게 통제하였을 때에 뉴스 미디어 신뢰도와 위기에 관한 관여도가 증가할수록 위기에 관한 정보처리를 위한 뉴스 미디어 사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뉴스 미디어 신뢰도 효과는 수용자의 위기지각과 정보처리를 위한 뉴스 미디어 사용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뉴스 미디어의 신뢰도 효과가 모든 공중에게 획일적이지 않고 관여도와 같은 공중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Key word : 뉴스 미디어 신뢰도, 위기지각, 관여도, 위기커뮤니케이션

* skyang@dongkang.ac.kr

** sungpal2002@hotmail.com (or suyang@vam.umd.edu)

1. 서론

위기는 어떤 물질이나 상황이 특수한 조건에서 위대한 상태를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정의된다(Risk World, 1997, January). 따라서 '위기 발생의 가능성'과 '위기 발생 후 결과'가 위기를 정의하는 주요한 특성임을 고려해 보면, 미국에서 발생한 지난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 이후 테러리즘은 현재의 미국 사회에서 주요한 위기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로, 미국 정부는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테러 이후에 자국방위라는 새로운 의제를 가지고 테러 방지를 위해 천문학적인 기금을 투입하고 있다(The White House, 2003, April 8). 한 예로, 2003년에 신설된 자국 방위부는 2003년 1월 19일부터 '잠재적 테러 공격에 대한 시민들의 준비(Citizen Preparedness Campaign about a potential terrorist attack)'라는 캠페인을 시작하여 이미 수조원의 기금을 테러 방지에 투입하였으며, 테러 지수를 설정하고 주요 변동시에는 매번 국민들에게 테러위기 발생의 가능성에 대해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다(The White House, 2003, February 19).

미국 정부의 테러위기 예방 노력과 관련하여, 얼마 전 미국 사회에서 재미있는 사회적 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다. 미국 자국 방위부에서 덕 테이프(duct tape)을 테러 공격의 피해를 줄이는 수단으로 제안한 이후에, 전래 없이 덕 테이프의 수요가 방독면의 수요와 함께 큰 인기를 얻었으며 미국 국민들은 덕 테이프 사재기에 나섰다. 이러한 예는 미국 국민들이 테러에 관해서 얼마나 높은 위기지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Sandman & Lanard, 2003, February 19).

테러리즘과 관련한 위키커뮤니케이션의 권위자인 샌드만 등(Sandman et al., 2003, February 19)은, 미국 자국 방위부의 덕 테이프에 관한 제안에 대해 미국 국민들은 확일적이지 않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가령, 부적절하게 공포를 조장하는 미국 정부에 대한 조소와 비판을 하는 공중으로부터, 무작정 덕 테이프와 방독면을 사재기하는 공중에 이르기까지 공중의 반응은 다양했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 국민들이 테러위기에 관해 다양한 수준의 개별적 관여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샌드만 등은 미국 언론 역시 뉴스 수용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걸맞게 다양한 논조의 뉴스를 전달하였다고 보고 있다.

잠재적 테러에 관한 미국 국민들의 위기지각은 한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BS 뉴스와 뉴욕 타임즈가 2003년 1월 11일에 미국 전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06명의 응답자 가운데 82%가 미국 내에 향후 몇 달 안에 또 다른 테러가 발생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Polling the Nation,

2003a). 또한 하버드 대학의 공공의학센터가 미국 전역에서 1007명을 대상으로 2003년 3월 25일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9%가 미국 내에 또 다른 대형 테러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2003, March).

뉴스 미디어의 신뢰도가 공중의 위기지각에 미치는 영향은 그 동안 위기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많은 연구들이 있었으며, 트럼보와 맥코마스(Trumbo & McComas, 2003)에 따르면 위기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개념 중 하나라고 한다. 먼저, 뉴스 미디어가 뉴스 수용자 개인의 의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맥콤과 레이놀즈(McCombs & Reynolds, 2002)는 뉴스 미디어의 '의제설정 효과'를 지지하는 수십년간의 축적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맥캘럼 등(McCallum, Hammond, & Covello, 1991)은 뉴스 미디어가 공중이 위기에 대해 지각하는 과정에 주요한 정보원임을 밝혀냈다.

하지만, 맥캘럼 등(1991)이 후속 연구들을 위해 제안했듯이, 본 연구자들은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공중의 위기지각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이지만, 그 효과는 수용자의 개별적 관여도에 따라서 차별적일 것이라고 가정하고 본 연구를 실행하였다. 태도 형성과 설득에 관한 심리학 문헌을 살펴보면, 설득에 관한 정교화 가능성 모형과 정보처리에 관한 발견적/체계적 모형이 본 연구에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이론들에 따르면, 뉴스 미디어 신뢰도와 위기에 관한 뉴스 수용자의 개별적 관여도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위기지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연구문제 제시

1) 설득과 정보처리

정교화 가능성 모형과 발견적/체계적 모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커뮤니케이션 정보원의 특성들(신뢰도, 정보원의 전문성 등)은 설득의 과정과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주장해왔다(Fiske & Taylor, 1992). 정교화 가능성 모형은 정교한 인지적 행위의 차이에 따라서 설득의 과정과 결과가 다르다고 한다(Petty & Cacioppo, 1981; Petty & Wegener, 1999). 수용자 개인의 정보처리에 관한 능력과 동기가 높은 경우, 다시 말해 정교한 인지적 행위가 있을 때에는 중심 경로를 통해서 설득 행위가 발생하며, 이 때에 메시지의 내용과 질이 설득행위의 원인이 된다(Petty, 1994). 반면, 수용자 개인의 정보처리에 관한 능력

과 동기가 낮은 경우, 즉 인지적 행위의 정교함이 떨어질 때에는 주변 경로를 통해서 정보원의 신뢰도나 전문성 등에 따라 설득 행위가 발생한다. 설득의 유형에 따라 중심부와 주변부를 구별해보면, 중심부에서는 주로 태도 변화의 결과가 큰 유형의 설득(예; 주택 구입이나 대학 진학 등)이, 그리고 주변부에서는 태도 변화의 결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유형의 설득(예; 저녁을 먹기 위한 식당 선택, 영화 관람 등)이 발생한다고 한다.

정교화 가능성 모형과 발견적/체계적 모형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이론적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있다. 정교화 가능성 모형은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며, 발견적/체계적 모형은 설득을 위한 정보처리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기 때문에 당연히 긴밀하게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정교화 가능성 모형의 중심 경로는 카이켄 등(Chaiken, 1980; Chaiken, Liberman, & Eagly, 1989)의 발견적/체계적 모형에서의 '체계적 경로'와 아주 유사하다. 정교화 가능성 모형의 중심 경로에서처럼, 발견적/체계적 모형에서의 체계적 경로에서는 메시지의 질을 추구하기 위한 정교한 정보처리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편, 발견적/체계적 모형에서의 '발견적 경로'에서는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피상적 정보처리가 발생하며 정보원의 특성에 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교화 가능성 모형의 주변 경로와 유사하다(Fiske & Taylor, 1992).

무엇보다도, 정교화 가능성 모형과 발견적/체계적 모형의 유사함은 정보 수용자의 개별적 '관여도'를 강조하는 데에 있다. 이 두 모형 각각에서 설득과 정보처리를 위한 이분적 경로(중심 경로/주변 경로, 체계적 경로/발견적 경로)를 결정하는 주요 원인은 정보처리를 위한 동기이며, 이 동기를 결정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을 정보 수용자의 '관여도'로 설명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수용될 메시지에 관한 개별적 관여도가 정교화 가능성 모형의 중심 경로(혹은 발견적/체계적 모형의 체계적 경로)에서 정보처리를 위한 동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한 예로, 정교화 가능성 모형의 창시자인 패티 등(Petty, Priester & Brinl, 2002)은 메시지를 처리하기 위한 개인적 관심이나 동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메시지에 관한 '개별적 관여도'라고 주장하였다. 피스케와 테일러(Fiske & Taylor, 1992) 역시 정보 수용자의 관여도가 정보의 체계적인 처리를 결정한다고 설명하였다.

2) 뉴스 미디어 신뢰도와 뉴스 수용자의 위기지각

커뮤니케이션 정보원에 관한 신뢰도는 정보 수용자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정보원에 대한 신뢰도이며, 수용한 메시지에 관한 개별적 반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메시지 습득 이후 수용자가 정보를 처리하여 태도를 형성/변화하는 데에도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강조되어왔다(Fiske & Taylor, 1992). 그 예로, 패티 등(Petty, Priester, & Brinol, 2002)은 설득은 커뮤니케이션 정보원에 관한 신뢰도가 메시지 수용자의 정보 처리에 영향을 주고, 이에 따라 수용한 메시지에서 강조/옹호되는 입장을 수용자가 받아들이면서 태도에 변화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위키커뮤니케이션 관련 정보원에 관한 연구에서 맥캘럼 등(McCallum et al., 1991)은 뉴스 미디어가 대인적 정보원과 같은 다른 정보원들에 비해 훨씬 많은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실제로 맥캘럼 등의 연구에서 위키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정보원들 중에서 대인적 정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12% 이하였다. 맥캘럼 등의 연구에서 중요한 결과는 위키커뮤니케이션 정보원에 관한 신뢰도가 정보 수용자의 위기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설득에 관한 정보 처리에서 정보원의 신뢰도가 차지하는 비중과 위키커뮤니케이션 정보원에서 뉴스 미디어의 영향을 고려해보면, 위키커뮤니케이션에서는 정보원의 신뢰도 중에서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공중의 위기지각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임을 가정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상황이 미국 내의 테러위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뉴스 수용자들이 지각하는 미국 언론의 신뢰도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미국 저널리즘은 일반적으로 신뢰도 부재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다(Howell, 1999; Rouner, Slater, & Buddenbaum, 1999). 실제로, 잠재적 테러위에 관한 미국 언론의 신뢰도를 보면, 여론 조사기관인 라퍼 센터(Roper Center for Public Opinion)가 미 전역을 대상으로 2003년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들의 40% 정도가 무책임한 보도를 한다고 지적했다(Polling the Nation, 2003b). 이는 미국 국민들이 테러위기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뉴스 미디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뉴스 미디어 신뢰도의 부족이나 부재로 인해 뉴스 미디어가 위기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미디어 이용을 통해서 정보를 처리하고 위기지각을 형성/변화하는 과정의 경우, 뉴스 수용자의 테러위기에 관한 관여도가 낮을 경우에는 정교화 가능성 모형이나 발견적/체계적 모형에서 시사하는 것처럼 뉴스 미디어의 신뢰도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반면, 뉴스 미디어 신뢰도의 부족이나 부재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 뉴스 미디어가 뉴스 수용자의 위기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된다고 할 수 있다.

3) 위기에 관한 뉴스 수용자의 관여도

위에서 살펴본 뉴스 미디어 신뢰도를 설득과 정보처리와 연결하여 살펴보면, 뉴스 미디어의 신뢰도가 뉴스 수용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수용자의 관여도가 높을 때보다 낮을 때 더욱 현저할 것임을 가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특정 위기에 관한 뉴스 수용자의 관여도가 높을 때에는 뉴스 미디어의 신뢰도와 같은 피상적인 요인이 아닌 뉴스의 내용이나 질에 의해 관여도가 낮을 때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정교한 정보 처리가 중심 경로 혹은 체계적 경로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찍이 하스(Hass, 1981)는 정보 수용자의 관여도와 정보원의 신뢰도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설득을 결정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위기와 관련해서, 비개인적 영향 가설을 가지고 타일러와 쿡(Tyler & Cook, 1984)은 뉴스 수용자의 관여도가 뉴스 미디어 보도에 관한 개인적 사고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하였다. 타일러와 쿡에 따르면, 수용자들이 미디어 보도에 노출된 이후에 형성하는 사고에는 두 가지 가능한 단계가 있다고 한다. 먼저, 사회적 단계의 사고는 개인이 속한 사회나 집단 등의 상황에 관련된 사고인 반면, 개인적 단계의 사고는 수용자 개인이나 본인과 가까운 이들이 위기에 희생될 가능성과 관련된 사고이다. 본 연구자들은 비개인적 영향 가설에서 위기에 관한 '개인적 단계의 사고'가 앞서서부터 언급해 온 위기에 관한 개별적 '관여도'와 긴밀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개별적 관여도를 측정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는 일반적으로 결과 적합적 관여도(outcome-relevant involvement)로 Petty와 카시오포(Petty & Cacioppo, 1979)가 처음으로 사안관여도(issue involvement)라고 구체적으로 명명하고 그들의 연구에 활용한 적이 있다.

비개인적 영향 가설이 시사하는 것은 뉴스 미디어의 영향이 일반적으로 개인적 단계의 사고가 아닌 '사회적 단계의 사고'에 국한되기 때문에, 뉴스 미디어가 위기와 관련한 개인의 지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뉴스 미디어의 보도가 뉴스 수용자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뉴스 수용자가 지각할 경우 즉, 뉴스 수용자가 뉴스에서 다루는 문제에 관해 개별적 관여도가 높을 경우에는 뉴스 미디어의 보도에 영향을 받고 그 문제에 관한 사고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뉴스에서 전달하고 있는 위기에 관한 개별적 관여도와 같은 비개인적 영향 가설 역시 뉴스 수용자 개인의 관여도가 뉴스에서 전달되는 정보를 처리하고 사고를 형성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4) 위기지각과 위기에 관한 관여도

일반적으로 ‘위기지각’이란 위기 발생의 가능성과 위기 발생후의 결과에 관한 ‘주관적’ 측정이나 평가를 말한다(Fishhoff, Watson, & Hope, 1984). 슬로빅(Slovic, 1992, p. 119)은 이러한 위기지각에 관한 주관적 측면에 대해, 위기지각에 관한 가장 중요한 점은 위기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며, 어떠한 ‘실제적 위기’ 혹은 ‘객관적 위기’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위기지각은 다양한 개인들간에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Magolis, 1996), 이는 위기에 관한 개별적 관여도가 위기지각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위기지각은 위기 자체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위기의 특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다(Fishhoff et al., 1978; Slovic, Fischhoff, & Lichtenstein, 1985; Slovic, 1992). 피쇼프 등(Fishhoff et al., 1978)의 연구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위해 물질과 위기 상황에서 위기지각의 특성과 특성간의 차원에 관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그 예로, 슬로빅(Slovic, 1992)은 81개 위해물질이나 위기 상황에서 위기지각들의 특성을 15개의 요인으로 분석하여, 지식과 공포라는 두개의 차원을 가지고 위기지각의 특성을 요인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요약한 바 있다. 최근에는 트럼보(Trumbo, 2002)가 발견적/체계적 모형을 이용해 정보처리에 관련된 변수들이 위기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설명하였다.

5) 연구문제 및 가설 설정

본 연구는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뉴스 수용자 개인의 위기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에 관한 개별적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위기에 관련된 정보처리를 위한 뉴스 미디어 사용정도를 예측하는 회귀 모형에서, 특히 뉴스 미디어 신뢰도와 개별적 관여도가 기타 예측변수들과 함께 얼마나 유용한 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뉴스 미디어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메이어(Meyer, 1988)의 5가지 차원의 척도(신뢰성, 정확성, 공정성, 완전성, 비편향성)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첫 번째 연구문제는 조사대상인 3개의 뉴스 미디어간에 신뢰성, 정확성, 공정성, 완전성, 비오류성 등의 뉴스 미디어 신뢰도 5가지 차원에 걸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문제 1> 조사대상인 3개의 뉴스 미디어(지역 TV, 신문), 인터넷)간

에 뉴스 미디어 신뢰도(신뢰성, 정확성, 공정성, 완전성, 비편향성)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만약 뉴스 미디어간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면, 주로 어느 미디어에서 그리고 어떤 뉴스 미디어 신뢰도에서 수준간 많은 차이가 있는가?

두 번째 연구문제는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뉴스 수용자 개인의 위기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에 관한 개별적 관여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2>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뉴스 수용자 개인의 위기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테러위기에 관한 개별적 관여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가? 즉,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뉴스 수용자 개인의 위기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 관여도가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가?

정교화 가능성 모형, 발견적/체계적 모형, 그리고 비개인적 영향 가설 등의 이론에 따르면, 메시지 수용자 개인의 정보처리에 관한 능력과 동기가 높은 경우에는 중심 경로를 통해 설득 행위가 발생하며, 이는 메시지의 내용과 질이 설득의 원인이 된다. 반면, 메시지 수용자 개인의 정보처리에 관한 능력과 동기가 낮은 경우에는 주변 경로를 통해 정보원의 신뢰도나 전문성 등에 따라 설득이 발생한다.

본 연구의 경우는, 테러위기에 관한 뉴스에 대해 개별적 관여도가 높을 때에는 뉴스 미디어의 신뢰도와 같은 피상적인 요인이 아닌 뉴스의 내용이나 질에 따라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위기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관여도가 낮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미약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반면, 테러위기에 관한 뉴스에 대해 개별적 관여도가 낮을 때에는 뉴스 미디어의 신뢰도가 위기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관여도가 높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뉴스 수용자의 위기지각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뉴스 수용자의 테러위기에 관한 관여도와 뉴스 미디어 신뢰도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개별적 관여도는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위기지각에 미치는 주효과를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변수가 되는 것이다.)

-
- 1) 워싱턴 D.C. 근교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을 응답자로 하였고 때문에 신문 미디어의 경우(지역신문과 중앙지로 구별이 불필요하여) 지역신문으로 한정하지 않았다.
 - 2) 본 연구에서는 실제적인 뉴스 내용이나 뉴스의 질에 대해서 사전에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

마지막으로, 연구문제3은 위기에 관련된 정보처리를 위한 뉴스 미디어 사용 정도를 예측하는 회귀모형에서, 특히 뉴스 미디어 신뢰도와 개별적 관여도가 기타 예측변수들과 함께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3> 위기지각을 형성하고 변화하기 위한 뉴스 미디어 사용은 어떠한 변수들이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가 있는가? 뉴스 미디어 신뢰도, 위기에 관한 개별적 관여도, 이들 변수들간의 상호작용효과 등은 정보처리를 위한 뉴스 미디어 사용을 예측하는데 얼마나 유용한가?

3.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워싱턴 D.C. 근교에 위치한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기초 과목을 수강하는 18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커뮤니케이션 기초 과목을

에, 뉴스 미디어 신뢰도와 위기지각 사이의 상관관계의 방향에 대해서는 가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뉴스의 내용과 질은 내용분석을 통해 일반적 경향을 조사하는 방식으로는 오류가 생길 수 있고, 뉴스 수용자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를 통제하지 않았다. 고관여 상황에서는 뉴스 미디어 신뢰도보다 '뉴스 자체의 내용과 질'에 따라 위기지각을 결정한다. 따라서, 고관여 상황에서는 뉴스 수용자가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뉴스 내용과 질에 따라 위기지각이 증가 혹은 감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의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가령, 고관여 상황에서는, 뉴스 내용이 테러위기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반응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고 뉴스 수용자가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정보를 처리하고 위기지각을 결정하였다면 위기지각이 감소할 것이다. 즉, 테러를 위기로 지각하는 정도가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두 변수(예측변수와 기준변수)간 상관계수의 부호는 음수(-)를 나타낸다. 한편, 뉴스 내용이 테러위기를 고조시키는 내용이고 뉴스 수용자가 고관여 상황에 있다면, 오히려 위기지각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두 변수간 상관계수의 부호는 양수(+)이다. 또한 뉴스 미디어 신뢰도의 주효과나 테러위기에 관한 관여도 주효과 역시 위기지각을 예측하는 효과의 방향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뉴스 내용과 질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하는 데에 무리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연구문제2의 연구목적은 위기지각을 예측하는 회귀모형에서 뉴스 미디어 신뢰도와 관여도 사이의 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는 것에 연구범위에 관한 한정이 있으며, 따라서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위기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확립적이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즉, 관여도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한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수강하는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응답자의 57.5%인 107명이 1학년이며, 30.6%인 57명이 2학년, 5.4%인 10명이 3학년, 그리고 3.4%인 7명이 4학년이다.

총 248명의 응답 대상자 가운데 186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약 75%의 응답률을 보였다. 응답자의 54.8%인 102명이 남학생이고, 42.5%인 79명이 여학생이다. 응답자는 10대 후반부터 28세까지이며, 응답자의 연령층을 보면 10대 후반이 151명이고 20대가 30명이다.

연구기간은 9·11 테러가 있는 지 1년이 되는 2002년 9월에 실시되었다.

2) 연구 절차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대학으로부터 연구인가를 받은 후에, 커뮤니케이션 기초 과목을 수강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가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크게 뉴스 미디어(지역 TV 뉴스, 신문, 인터넷)의 신뢰도 평가, 잠재적 테러위기에 관한 응답자 개인의 관여도 조사, 테러에 관한 응답자의 위기지각, 그리고 테러에 관한 뉴스 미디어 이용시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주요 변수의 측정 및 자료분석 방법

뉴스 미디어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메이어(Meyer, 1988)의 미디어 신뢰도 측정을 위한 5개 척도를 사용하였다. 가지노와 맥그래스(Gazino & McGrath, 1986)가 처음으로 12개 척도를 이용해서 미디어 신뢰도를 측정하였으며, 이후에 메이어(Meyer, 1988)가 이를 이용해서 5개의 척도로 미디어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위기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최근에 맥코마스과 트럼보(McComas & Trumbo, 2001), 트럼보와 맥코마스(Trumbo & McComas, 2003)가 메이어의 척도를 이용해 뉴스 미디어 신뢰도를 측정하였는데, 다양한 사례를 대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설문 응답자들의 지리적/연령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TV 뉴스, 신문, 인터넷 등의 3개 미디어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뉴스 미디어 신뢰도는 신뢰성(믿음이 간다/믿음이 가지 않는다), 정확성(정확하다/정확하지 않다), 공정성(공정하다/공정하지 않다), 완전성(완전한 보도를 한다/불완전하다), 비편향성(편향됨이 없다/편향되어 있다) 등의 5개의 척도를 5점 의미분별척도를 이용하여 매체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뉴스 미디어 신뢰도를 측정하는 문항의 신뢰도가 크론바흐의 알파(Cronbach's alpha)를 기준으로 .87을 보였다. 크론바흐의 알파를 기준으로

로 지역 TV 뉴스가 .83, 신문이 .83, 인터넷이 .91을 보여, 뉴스 미디어 신뢰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3개의 뉴스 미디어 모두에 있어서 양호한 신뢰도를 보였다.

회귀모형을 단순화시키기 위해, 5개 척도들의 주성분을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통해 추출하여 5개 관측변수의 값을 요약하였다. 주성분분석 과정에서 scree plot에 따르면 5개의 관측변수들에 의해 총변량의 66.46%를 설명(KMO=.818)하고 있다. 추출된 주성분과 5개 관측변수들의 인자적재값은, 신뢰성이 .84, 정확성은 .83, 공정성은 .83, 완전성은 .84, 비편향성은 .75를 보여, 주성분이 성공적으로 관측변수들을 요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뉴스 수용자의 테러위기에 관한 개별적 관여도는 3개의 질문항목⁸⁾을 통해 측정하였다. 관여도는 그루닉과 헌트(J. Grunig & Hunt, 1984)의 상황이론 중에서 공중의 관여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이용하였다.

측정 문항들의 신뢰도는 크론바흐의 알파를 기준으로 .93이며, 이는 우수한 수준의 신뢰도이다. 뉴스 미디어 신뢰도에서와 마찬가지로 3개 관측변수들을 주성분분석을 통해 적은 수의 주성분으로 요약하여 회귀모형을 단순화시키고자 하였다. 주성분분석 과정에서 scree plot에 따르면 추출된 3개의 관측변수들에 의해 설명되는 총 변량은 87.27%(KMO=.742)이며, 추출된 주성분과 3개 관측변수들의 인자적재값은, 개인적 관여도가 .93, 가족/친구와 관련된 관여도가 .96, 그리고 지역공동체에 관련된 관여도가 .92를 보여서 주성분이 성공적으로 관측변수들을 요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테러에 관한 위기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슬로빅 등(Slovic et al., 1979)의 위기지각을 측정하는 7개 질문 항목⁹⁾이 사용되었다. 슬로빅 등의 질문과 척도는 그 동안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rumbo, 2002;

8) 본 연구에서는 개별적 관여도를 문제/사안(issue)이 한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미칠 수 있는 결과 정도로 정의하여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이용된 3개의 질문과 척도는, '개인적 관여도'(잠재적 테러위기가 나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가 있다), '가족/친구와 관련된 관여도'(잠재적 테러위기가 내 가족과 친구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가 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와 관련된 관여도'(잠재적 테러위기가 내가 사는 지역의 공중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가 있다) 등으로 개인/가족이나 친구/지역공동체 등의 3가지 차원에서 테러위기에 관한 개별적 관여도를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다.

9) 테러위기에 관한 지각은 '공포감'(차분히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대단한 공포를 유발한다), '통제불가능'(통제가 가능하다/통제가 불가능하다), '치명적임'(확실히 치명적이지 않다/결과가 치명적이다), '새로움'(전부터 있었던 위기이다/아주 새로운 유형의 위기이다), '알려져 있음'(정확히 알려진 위기이다/체대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 '즉각적 효과'(즉시 위기의 효과가 있다/효과가 지연된다), '자발적임'(자발적인 위기이다/비자발적인 위기이다) 등의 7개의 항목에 대해 5점의 의미분별척도를 이용하여 매체별로 측정하였다.

Trumbo & McComas, 2003).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위기지각에 관한 측정 문항들의 신뢰도가 크론바흐의 알파를 기준으로 .67로 약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측정 문항의 신뢰도가 크론바흐의 알파를 기준으로 앞의 척도들과는 달리 .67로 낮았기 때문에, 주성분분석을 이용한 주성분을 추출하지 않았다. 측정 문항들 사이의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척도들간의 상관관계가 미약하다는 것을 뜻하며, 이 경우에 주성분분석으로 다수의 관측변수들을 요약하는 것은 오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평균값을 산출해 관측변수들의 종합 지수를 만드는 것도 척도 각 차원의 개별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테러위기에 관한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샌드만 등(Sandman & Lanard, 2003, February 19)이 제안하는 것처럼, 테러위기의 상황에서는 통제불가능과 공포감과 같은 차원들이 테러에 관한 위기지각을 측정하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이 2개의 척도를 기준변수물 하여 개별적인 다중회귀분석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테러 위기에 관한 정보처리를 위해 응답자들이 일주일 동안 각각의 뉴스 미디어 사용시간을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측정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하면, <연구문제 1>은 3개의 뉴스 미디어(지역 TV뉴스, 신문, 인터넷)를 독립변수로, 5개 차원의 뉴스 미디어 신뢰도(신뢰성, 정확성, 공정성, 완전성, 비오류성)를 종속변수로 하고, 뉴스 미디어 이용시간을 공변량으로 통계적 통제하여 일원 다분산분석(one-way MANCOVA)을 실시하였다.¹⁰⁾ 또한 정준변량(canonical variates)을 산출하여, 주로 어떤 뉴스 미디어에서 그리고 어떠한 차원의 뉴스 미디어 신뢰도에서 수준들 간 차이가 발생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는 테러에 관한 위기지각(통제불가능/공포감)을 예측하고, <연구문제 3>에서는 위기지각을 형성하기 위한 뉴스 미디어 이용시간을 예측하기 위한 순차적 다중회귀분석(sequential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를 분석하기 위한 다중회귀모형에서는, 뉴스 미디어 신뢰도와 개별적 관여도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 파악을 위해 합성변수를 산출하였는데, 뉴스 미디어 신뢰도 5개 관측변수들을 요약한 주성분과 개별적 관여도 3개 관측변수들을 요약한 주성분을 곱하여 산출하였다.¹¹⁾

10) 개별적인 분산분석(ANOVA)을 여러 번 실시하는 것보다, 다분산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종속변수간의 분산뿐만 아니라 공분산까지 고려하며, 여러 종속변수들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결과분석에 용이하다. 무엇보다도 제1종오류가 발생하여 가설 검증에 오류가 생기는 문제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다.

11) 일반적으로 두 연속변수들을 곱하여 합성변수를 산출하고, 그 합성변수를 회귀모형에 예측변수로 투입하면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합

4. 연구결과

본 연구는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뉴스 수용자 개인의 특정 위기에 관한 지각을 형성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위기에 관한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또한, 위기에 관련된 정보처리를 위한 뉴스 미디어 사용정도를 예측하는 회귀모형에서, 특히 뉴스 미디어 신뢰도와 개별적 관여도가 기타 예측변수들과 함께 얼마나 유용한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은 조사대상 3개의 뉴스 미디어에 신뢰성, 정확성, 공정성, 완전성, 비편향성 등의 뉴스 미디어 신뢰도를 5가지 차원에 걸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미디어 수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면, 어떤 미디어에서 그리고 어떤 뉴스 미디어 신뢰도에서 수준간 많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문제에 따라서, 3개의 뉴스 미디어(지역 TV뉴스, 신문, 인터넷)를 독립변수로, 5개 차원의 뉴스 미디어 신뢰도(신뢰성, 정확성, 공정성, 완전성, 비편향성)를 종속변수로 하고, 뉴스 미디어 이용시간을 공변량으로 통계적 통제하여 일원 다분산분석(one-way MANCOV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표 2>를 보면 뉴스 미디어 신뢰도 5개 차원을 동시에 고려해 보았을 때, 조사대상 3개 뉴스 미디어간의 신뢰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의 정준변량¹²⁾과 종속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뉴스 미디어간 신뢰도 차이가 각각의 정준변량이 설명하는 2개의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표 2>에서 Pillai의 대각합(Pillai's Trace)의 값을 보면,¹³⁾ 주효과인 뉴스 미디어 유형의 경우에는, $V=.279$, $F(10, 1076) = 17.470$,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를 위해, 뉴스 미디어 사용시간이 뉴스 미디어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통제하였으며, 공변량의 경우에는, $V=.041$, $F(5, 537) = 4.623$, $p < .001$,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성변수를 편차로 중심화하여 평균이 0이 되도록하거나 아니면 표준화하여 다중공선성 문제를 예방하는데(Tabachnick and Fidell, 2001), 본 연구의 경우에는 주성분으로 요약되는 과정에서 이미 값이 표준화되었기 때문에, 또 다시 표준화할 필요가 없다. 예측변수들을 표준화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분석할 때에는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이용하도록 하겠다.

- 12) 정준변량(canonical variates)은 다변량분석의 하나로 독립변수의 수준간 차이가 발생하는 차원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원판별함수계수(raw discriminant function coefficient)를 가중치로 하여 독립변수의 관측값을 선형결합하여 산출한다.
- 13) 독립변수의 수준간 차이가 1차원에서 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Roy's Maximum Root Criterion을, 2차원 이상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Pillai의 대각합(Pillai's Trace)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Tabachnick and Fidell, 2001).

〈표 1〉 뉴스 미디어 유형에 따른 뉴스미디어 신뢰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신뢰도	미디어 유형	평균	표준편차
신뢰성	지역 TV 뉴스	3.52	.781
	신문	3.79	.797
	인터넷	2.82	.941
	합계	3.38	.935
정확성	지역 TV 뉴스	3.47	.850
	신문	3.76	.837
	인터넷	2.84	.843
	합계	3.36	.924
공정성	지역 TV 뉴스	3.13	.883
	신문	3.43	.790
	인터넷	2.97	.883
	합계	3.18	.873
완전성	지역 TV 뉴스	2.64	.940
	신문	3.15	.939
	인터넷	2.63	.931
	합계	2.81	.965
비편향성	지역 TV 뉴스	2.62	.978
	신문	2.84	.949
	인터넷	2.56	.950
	합계	2.67	.965

이처럼 뉴스 미디어간에 뉴스 미디어 신뢰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면 어떤 미디어에서, 그리고 어떤 뉴스 미디어 신뢰도 차원에서 가장 주요한 차이가 생기는 지에 대해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표 3>의 정준변량과 종속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신뢰성과 정확성에서 뉴스 미디어간 신뢰도의 차이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1>을 보면 신뢰성과 정확성 모두에서 각각 신뢰도의 경우 평균값이 신문(3.79) > 지역 TV 뉴스(3.52) > 인터넷(2.82)이며 정확성의 경우 신문(3.76) > 지역 TV 뉴스(3.47) > 인터넷(2.84)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연구문제 2>는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뉴스 수용자 개인의 위기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에 관한 개별적 관여도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뉴스 수용자 개인의 위기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 관여도가 효과적으로 조절하는가를 보고자 하였다.

〈표 2〉 뉴스 미디어 유형간의 뉴스 미디어 신뢰도 차이분석(one-way MANCOVA)

효과		값	F	가설 자유도	오차 자유도	유의성
절편	Pillai's Trace	.925	1333.877	5.000	537.000	.000
	Wilks' Lambda	.075	1333.877	5.000	537.000	.000
	Hotelling's Trace	12.420	1333.877	5.000	537.000	.000
	Roy's Largest Root	12.420	1333.877	5.000	537.000	.000
뉴스 미디어 사용 (공변량)	Pillai's Trace	.041	4.623	5.000	537.000	.000
	Wilks' Lambda	.959	4.623	5.000	537.000	.000
	Hotelling's Trace	.043	4.623	5.000	537.000	.000
	Roy's Largest Root	.043	4.623	5.000	537.000	.000
뉴스 미디어유형	Pillai's Trace	.279	17.470	10.000	1076.000	.000
	Wilks' Lambda	.730	18.296	10.000	1074.000	.000
	Hotelling's Trace	.357	19.125	10.000	1072.000	.000
	Roy's Largest Root	.316	33.995	5.000	538.000	.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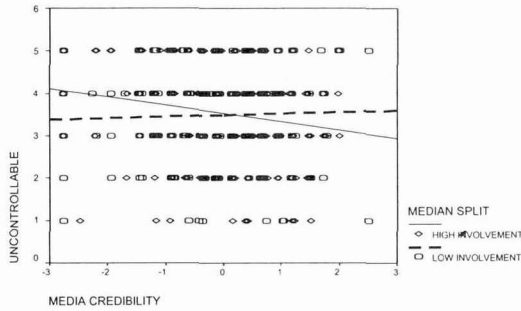
〈표 3〉 정준변량과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

신뢰도	정준변량1	정준변량2
신뢰성	.873	-.227
정확성	.825	-.278
공정성	.384	-.494
완전성	.313	-.903
비편향성	.162	-.3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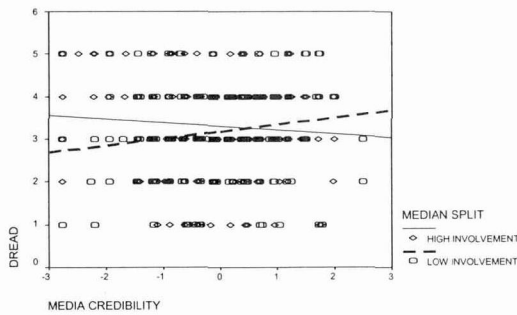
그리하여 <연구문제 2>에서는 테러에 관한 2가지 차원의 위기지각(통제불가능/공포)을 예측하기 위한 순차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뉴스 미디어 신뢰도의 주성분과 개별적 관여도의 주성분을 곱하여 상호작용을 검증하기 위한 합성변수를 산출하였다. 순차적 다중회귀분석에는 가장 먼저 주효과인 뉴스 미디어 신뢰도와 개별적 관여도를 보고, 이어서 이들 예측변수간의 상호작용변수, 미디어 가변수와 미디어 사용 시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성별 가변수와 연령을 회귀모형에 순차적으로 예측변수로 활용하였다.

우선, <그림 1>과 <그림 2>를 보면 두 가지 차원의 테러에 관한 위기지각(통제불가능/공포)을 예측하는 회귀모형에서 관여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회귀직선의 기울기가 상반되며, 이는 각각의 회귀모형에서 관여도¹⁴⁾의 조절효과

14)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보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원래 연속변수였던 관여도를 중앙값으로 나누어 고관여와 저관여 등을 나타내는 범주형 변수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표4>와 <표5>



〈그림 1〉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테러에 관한 통제불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개별적 관여도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



〈그림 2〉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테러에 관한 공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개별적 관여도의 조절효과(moderating effect)

가 유의미함을 뜻한다. 즉, 위기지각을 예측하는 것에 뉴스 미디어의 신뢰도와 관여도 사이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림 1>과 <그림 2>를 보면 이러한 상호작용효과가 회귀직선간 교차가 생기는 비순서적(disordinal) 상호작용임을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뉴스 수용자의 테러위기에 대한 관여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뉴스 미디어 신뢰도와 위기지각간의 상관관계의 방향이 반대로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고관여 상황일 때에는,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증가할 수록 테러에 관한 위기지각이 감소하고 있다. 즉, 테러를 위기로 지각(통제불가능한 위기/공포스러운 위기)하는 정도가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저관여 상황일 때에는,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증가할 수록 테러에 관한 위기지각이 증가하고 있다. 물

에서는 범주형 변수로 바꾸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보의 손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회귀 분석모형에서는 원래대로 연속변수로 활용하였다.

론, 이러한 해석은 회귀모형내 다른 예측변수들의 효과를 일정하게 통제하고서 상호작용효과에만 국한시켰을 때에 가능하다.

또한 <그림 1>과 <그림 2>를 보면, 정교화 가능성 모형이나 발견적/체계적 모형에서 예측하는 것과는 다르게, 특별히 저관여 상황에서 뉴스 미디어 신뢰도의 영향이 고관여 상황에서도 증가하지는 않았다. 이는 각 그림에서 회귀직선간의 기울기를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그림 1>의 경우에는 오히려 고관여 상황일 때 뉴스 미디어 신뢰도의 영향이 크다. <그림 2>의 경우에는 고관여/저관여 상황에서 뉴스 미디어 신뢰도의 영향이 유사하다.

다음으로, 뉴스 미디어 신뢰도와 관여도 등의 주효과와 영향은 <표 4>의 모형4를 보면 테러위기에 관한 '통제불가능'을 예측하기 위한 회귀모형에서 뉴스 미디어 신뢰도와 테러에 관한 관여도의 회귀계수의 부호가 음수(-)이다. 이는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낮을 수록, 테러에 관한 관여도가 낮을 수록, 테러위기를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증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5>의 모형4를 보면 테러위기에 관한 '공포감'을 예측하기 위한 회귀모형에서 뉴스 미디어 신뢰도 회귀계수의 부호는 음수(-)이고 관여도의 회귀계수의 부호는 양수(+)이다. 다시 말해서,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낮을 수록, 테러위기에 관한 관여도가 높을수록, 테러위기가 공포스럽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증가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두 차원의 위기지각에서 공통적인 점은 회귀모형 내 다른 예측변수들의 효과를 일정하게 통제했을 때에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낮을수록 그 뉴스를 수용한 수용자가 테러를 위기로 지각하는 정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관여도의 경우에는 위기지각의 차원에 따라 회귀계수의 부호가 변하였다.

<표 4>와 <표 5>는 두 가지 차원의 테러에 관한 위기지각(통제불가능/공포감)을 예측하기 위한 순차적 다중회귀모형이다. 미디어 신뢰도와 관여도간 주효과와 이들 변수간의 상호작용효과만을 보려고 하면, 각각의 표에서 2번째 모형을 보면 된다. <표 4>는 테러에 관한 통제불가능을 예측하기 위한 회귀모형인데, 이중 2번째 회귀모형을 보면 미디어 신뢰도의 주효과($t=-2.013$, 표준화회귀계수 $=-.088$, $p < .05$)와 미디어 신뢰도와 관여도 사이의 상호작용효과($t=-2.173$, 표준화회귀계수 $=-.096$, $p < .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5>는 테러에 관한 '공포감'을 예측하기 위한 회귀모형으로, 이중 2번째 회귀모형을 보면 관여도의 주효과($t=3.376$, 표준화회귀계수 $=.146$, $p < .01$)와 미디어 신뢰도와 관여도 사이의 상호작용효과($t=-2.427$, 표준화회귀계수 $=-.106$, $p < .05$)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¹⁵⁾

15) <그림3>을 보면 상호작용효과가 비순서적(disordinal)이기 때문에, 이처럼 주효과가 부분적으로만 유의미할 수도 있다.

〈표 4〉 테러위기에 관한 '통제불가능'을 예측하기 위한 순차적 다중회귀모형

모형	변수	표준화 회귀계수	t	유의성***	허용****
1	상수		73.555	.000	
	미디어 신뢰도	-.076	-1.748	.081	.996
	관여도	.038	.878	.380	.996
2	상수		73.818	.000	
	미디어 신뢰도	-.088	-2.013	.045	.981
	관여도	.028	.631	.528	.984
	미디어신뢰도X 관여도	-.096	-2.173	.030	.970
3	상수		58.809	.000	
	미디어 신뢰도	-.088	-1.863	.063	.835
	관여도	.042	.953	.341	.962
	미디어신뢰도X 관여도	-.094	-2.116	.035	.962
	미디어 유형 가변수1	-.009	-.178	.859	.751
	미디어 유형 가변수2	.043	.825	.410	.678
	미디어 사용 시간	-.094	-2.104	.036	.944
4	상수		-.265	.791	
	미디어 신뢰도	-.086	-1.869	.062	.834
	관여도	-.015	-.343	.732	.912
	미디어신뢰도X 관여도	-.096	-2.223	.027	.959
	미디어 유형 가변수1	-.009	-.178	.859	.751
	미디어 유형 가변수2	.041	.806	.421	.678
	미디어 사용 시간	-.073	-1.655	.099	.923
	성별 가변수**	-.234	-5.408	.000	.948
	연령	.063	1.482	.139	.971

*미디어 유형 가변수1은 1=지역 TV 뉴스, 0=신문, -1=인터넷으로 미디어 유형 가변수2는 1=신문, 0=지 역 TV 뉴스, -1=인터넷으로 코딩하였다.

**성별 가변수는 1=남자, 0=여자로 코딩하였다.

***유의수준을 .05로 하였을 때, 유의성이 .05 미만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허용(Tolerance)은 1-다중상관제곱(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값이 1에 가까울 수록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고 하겠다.

모형1에서는 다중상관계수제곱(R²)=.007(통계적 무의미), 모형2에서는 다중상관계수제곱=.016, 다중상관계수제곱의 변화량(ΔR²)=.009(p< .05), 모형3에서는 다중상관계수제곱=.026, 다중상관계수제곱의 변화량=.010(통계적 무의미), 모형4에서는 다중상관계수제곱=.084, 다중상관계수제곱의 변화량=.058(p<.001).

〈표 5〉 테러위기에 관한 '공포감'을 예측하기 위한 순차적 다중회귀모형

모형	변수	표준화 회귀계수	t	유의성***	허용****
1	상수		75.488	.000	
	미디어 신뢰도	.026	.609	.543	.995
	관여도	.158	3.642	.000	.995
2	상수		75.832	.000	
	미디어 신뢰도	.015	.342	.733	.983
	관여도	.146	3.376	.001	.984
	미디어신뢰도X 관여도	-.106	-2.427	.016	.975
3	상수		57.409	.000	
	미디어 신뢰도	-.004	-.076	.939	.838
	관여도	.128	2.932	.004	.962
	미디어신뢰도X 관여도	-.112	-2.582	.010	.967
	미디어 유형 가변수1	-.002	-.048	.962	.750
	미디어 유형 가변수2	.000	.007	.995	.681
	미디어 사용 시간	.123	2.785	.006	.940
4	상수		1.723	.085	
	미디어 신뢰도	-.004	-.077	.939	.836
	관여도	.139	3.094	.002	.914
	미디어신뢰도X 관여도	-.111	-2.550	.011	.963
	미디어 유형 가변수1	-.003	-.051	.959	.750
	미디어 유형 가변수2	.001	.011	.991	.681
	미디어 사용 시간	.117	2.613	.009	.919
	성별 가변수**	.038	.867	.387	.950
	연령	-.028	-.645	.519	.971

*미디어 유형 가변수1은 1=지역 TV 뉴스, 0=신문, -1=인터넷으로 미디어 유형 가변수2는 1=신문, 0=지역 TV 뉴스, -1=인터넷으로 코딩하였다.

**성별 가변수는 1=남자, 0=여자로 코딩하였다.

***유의수준을 .05로 하였을 때, 유의성이 .05 미만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허용(tolerance)은 1-다중상관제곱(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값이 1에 가까울 수록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고 하겠다.

모형1에서는 다중상관계수제곱(R²)=.026(p < .01), 모형2에서는 다중상관계수제곱=.037, 다중상관계수제곱의 변화량(ΔR²)=.011(p < .05), 모형3에서는 다중상관계수제곱=.052, 다중상관계수제곱의 변화량=.014(p=.05), 모형4에서는 다중상관계수제곱=.054, 다중상관계수제곱의 변화량=.002(통계적 무의미).

다중상관계수제공은 예측변수들이 기준변수(혹은 독립변수)의 변량을 몇%나 설명하였는가를 보여주는 통계적 지수인데, <표 4>와 <표 5>의 회귀모형에서 미디어 신뢰도와 관여도의 주효과와 이들 변수의 상호작용효과만으로는 원래 값은 각각 .016과 .037에 그치고 있었다. 이는 테러에 관한 위기지각을 예측하기 위한 회귀모형에서 예측변수들의 설명력이 부족함을 뜻한다. 따라서 <표 4>와 <표 5>에서 보듯이, 미디어 유형, 테러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한 미디어 사용 시간, 성별, 연령 등의 예측변수들을 추가로 (탐색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였다.

각각의 회귀모형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표 4>에서는 다중상관계수제공이 .016에서 .084로 증가하였으며, 추가로 활용된 예측변수들 중에서 성별 가변수($t=-5.408$, 표준화회귀계수 $=-.234$, $p < .0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가변수를 만들 때 남성을 1로 여성을 0으로 코딩하였다. 이는 여성들이 테러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남성보다 크며, 성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뜻한다.

테러위기에 관한 공포감을 예측하기 위한 회귀모형인 <표 5>에서는 다중상관계수제공이 .037에서 .054로 증가하였으며, 추가로 활용된 예측변수들 중에서 뉴스 미디어 사용 시간($t=2.613$, 표준화회귀계수 $=.117$, $p < .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는 테러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뉴스 미디어를 사용할 수록 테러위기에 관한 공포심이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뜻한다.

<연구문제 3>은 위기에 관련된 정보처리를 위한 '뉴스 미디어 사용정도'를 예측하는 회귀모형에서, 특히 뉴스 미디어 신뢰도와 개별적 관여도가 기타 예측변수들과 함께 얼마나 유용한가를 살펴보고 하였다.

<표 6>의 다중회귀모형을 보면, 원래는 뉴스 미디어 유형(지역 TV 뉴스, 신문, 인터넷 등)만으로는 테러위기에 관한 뉴스 미디어 사용을 예측하기에 부적절함을 알 수가 있다(모형1, 다중상관계수제공 $=.004$, 통계적 무의미). 그러나 모형2에서는 모형1에 미디어 신뢰도, 관여도, 미디어 신뢰도와 관여도간 상호작용 등의 예측변수들을 추가로 활용하게 되면 다중상관계수제공변화량(ΔR^2)이 .052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된다($p < .001$). 모형2에서 보면 미디어 신뢰도($t=3.961$, 표준화회귀계수 $=.183$, $p < .001$), 관여도($t=3.379$, 표준화회귀계수 $=.146$, $p < .01$)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미디어 신뢰도와 관여도간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 이는 다른 예측변수들의 효과를 일정하게 통제하였을 때, 미디어 신뢰도와 관여도가 증가할 수록 테러위기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미디어 사용이 증가함을 뜻한다.

또한 모형3에 2가지 차원의 위기지각을 예측변수들로 활용하였을 때, 다중상관계수제공의 변화량이 원래 .02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p=.001$). 즉, 통제불가능($t=-2.439$, 표준화회귀계수 $=-.105$, $p < .05$), 공포감($t=3.070$, 표준화회

〈표 6〉 테러위기에 관한 '뉴스 미디어 사용'을 예측하기 한 순차적 다중회귀모형

모형	변수	표준화 회귀계수	t	유의성***	허용****
1	상수		18.076	.000	
	미디어 유형 가변수1	-.060	-1.198	.232	.754
	미디어 유형 가변수2	-.005	-.105	.917	.754
2	상수		18.355	.000	
	미디어 유형 가변수1	-.059	-1.195	.233	.753
	미디어 유형 가변수2	-.070	-1.345	.179	.682
	미디어 신뢰도	.183	3.961	.000	.861
	관여도	.146	3.379	.001	.983
	미디어신뢰도X 관여도	.055	1.262	.207	.966
3	상수		3.605	.000	
	미디어 유형 가변수1	-.058	-1.188	.235	.752
	미디어 유형 가변수2	-.063	-1.232	.219	.681
	미디어신뢰도	.169	3.677	.000	.852
	관여도	.129	2.999	.003	.962
	미디어 신뢰도 X 관여도	.058	1.344	.180	.949
	통제 불가능	-.105	-2.439	.015	.970
	공포감	.133	3.070	.002	.950
4	상수		3.178	.002	
	미디어 유형 가변수1	-.057	-1.183	.237	.752
	미디어 유형 가변수2	-.064	-1.264	.207	.681
	미디어신뢰도	.171	3.754	.000	.852
	관여도	.141	3.216	.001	.913
	미디어 신뢰도 X 관여도	.065	1.503	.134	.946
	통제 불가능	-.089	-2.021	.044	.903
	공포감	.125	2.883	.004	.942
	성별 가변수**	.015	.339	.735	.892
	연령	-.125	-2.953	.003	.982

*미디어 유형 가변수1은 1=지역 TV 뉴스, 0=신문, -1=인터넷으로 미디어 유형 가변수2는 1=신문, 0=지역 TV 뉴스, -1=인터넷으로 코딩하였다.

**성별 가변수는 1=남자, 0=여자로 코딩하였다.

***유의수준을 .05로 하였을 때, 유의성이 .05 미만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허용(Tolerance)은 1-다중상관제곱(squared multiple correlations)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모형1에서는 다중상관계수제곱(R2)=.004(통계적 무의미), 모형2에서는 다중상관계수제곱=.056, 다중상관계수제곱의 변화량(ΔR2)=.052(p< .001), 모형3에서는 다중상관계수제곱=.081, 다중상관계수제곱의 변화량=.025(p=.001), 모형4에서는 다중상관계수제곱=.097, 다중상관계수제곱의 변화량=.016(p < .05).

귀계수=.133, $p < .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는 다른 예측변수들의 효과를 일정하게 통제하였을 때, 테러위기에 대해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지각할수록, 뉴스 미디어를 사용하는 정도가 줄어들고 테러위기가 공포스럽다고 지각할수록, 테러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뉴스 미디어를 사용하는 정도가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즉, 위기지각의 차원에 따라서 미디어 이용에 관한 차별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형4에 응답자의 연령과 성별을 예측변수들로 활용하였을 때, 다중상관계수제곱의 변화량이 .01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p < .05$). 이중 연령($t=-2.953$, 표준화회귀계수=-.125, $p < .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예측변수인데, 다른 예측변수들의 효과를 일정하게 통제하였을 때,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테러위기에 관한 정보처리를 위해 뉴스 미디어를 사용하는 시간이 증가함을 뜻한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뉴스 수용자 개인의 특정 위기에 관한 지각을 형성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위기에 관한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또한, 위기에 관련된 정보처리를 위한 뉴스 미디어 사용정도를 예측하는 회귀모형에서, 특히 뉴스 미디어 신뢰도와 개별적 관여도가 기타 예측변수들과 함께 얼마나 유용한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다분산분석을 통해서 뉴스 미디어 신뢰도 5차원을 동시에 고려해 보았을 때, 조사 대상 3개 미디어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신뢰성과 정확성에서 뉴스 미디어간에 신뢰도의 차이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신문과 지역 TV 뉴스간 차이는 거의 없으나, 이들 미디어들과 인터넷과의 차이가 현저하였다.

<연구문제 2>는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뉴스 수용자 개인의 위기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위기에 관한 개별적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는 테러에 관한 2가지 차원의 위기지각(통제불가능/공포)을 예측하기 위한 순차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관여도에 따라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뉴스 수용자 개인의 위기지각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화되며, 이러한 상호작용효과는 회귀직선간 교차가 생기는 비순서적 상호작용효과가 있었다. 즉, 뉴스 수용자의 테러위기에 대한 관여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 뉴스 미디어 신뢰도와 위기지각간의 상관관계의

방향이 반대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고관여 상황일 때에는, 회귀모형내 다른 예측변수들의 효과를 일정하게 통제하면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증가할수록 테러에 관한 위기지각이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저관여 상황일 때에는, 다른 예측변수들의 효과를 일정하게 통제하면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증가할수록 테러에 관한 위기지각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메시지 수용자의 관여도와 정보원의 신뢰도의 상호작용이 설득과 정보처리 과정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정교화 가능성 모형과 발견적/체계적 모형 등의 이론들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관여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정교화 가능성 모형이나 발견적/체계적 모형에서 예측하는 것과는 다르게, 특별히 저관여 상황에서 뉴스 미디어 신뢰도의 영향이 고관여 상황에서도 증가하지는 않았다. 이는 회귀모형에서 회귀직선간의 기울기를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테러에 관한 통제불가능을 예측하는 회귀모형에서는 오히려 고관여 상황일 때 뉴스 미디어 신뢰도의 영향이 크다. 테러에 관한 공포감을 예측하는 회귀모형에서는 고관여/저관여 상황에서 뉴스 미디어 신뢰도의 영향이 유사함을 알 수가 있다.

뉴스 미디어 신뢰도나 관여도 등의 주요효과와 관련된 결과를 보면, 두 차원의 위기지각에서 공통적인 점은 다른 예측변수들의 효과를 일정하게 통제했을 때에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낮을 수록 뉴스 수용자가 테러를 위기로 지각하는 정도가 증가하는 것이다. 관여도의 경우에는 위기지각의 차원에 따라 회귀계수의 부호가 변하고 있다. 회귀모형에 예측변수들을 추가하였을 때, 성별(여성)과 뉴스 미디어 사용시간이 부분적으로 유의미하게 위기지각을 예측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은 위기에 관련된 정보처리를 위한 뉴스 미디어 사용하는 정도를 예측하는 회귀모형에서, 특히 뉴스 미디어 신뢰도와 개별적 관여도가 기타 예측변수들과 함께 얼마나 유용한가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뉴스 미디어 신뢰도, 관여도, 위기지각, 연령 등이 '뉴스 미디어 사용 정도'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예측변수들이며, 관여도와 뉴스 미디어 신뢰도간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뉴스 미디어 자체의 특성만으로는 뉴스 미디어 사용 정도를 예측하기에 불충분하였고, 다른 예측변수들의 효과를 일정하게 통제하였을 때에 뉴스 미디어 신뢰도와 위기에 관한 관여도가 증가할수록 위기에 관한 정보처리를 위한 뉴스 미디어 사용이 증가함을 뜻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뉴스 미디어 신뢰도의 효과가 수용자의 위기지각과 정보처리를 위한 뉴스 미디어 사용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뉴스 미디어의 신뢰도의 효과가 모든 공중에게 획일적이지 않고 관여도와 같은 공중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차별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들은 설득에 관한 정교화 가능성 모형과 정보처리에 관한 발견적

/체계적 모형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뉴스 수용자의 위기에 관한 개별적 관여도가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뉴스 수용자의 위기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미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위기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뉴스 미디어의 신뢰도(혹은 기타 정보원의 신뢰도)가 메시지 수용자 개인의 위기지각을 형성하는 데에 차별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이 뉴스 미디어간의 차이보다는 메시지 수용자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계획/실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보완되어야 할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뉴스 메시지 자체의 내용과 질을 측정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뉴스 미디어 신뢰도나 관여도의 주효과, 그리고 상호작용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설을 설정할 수 없었다. 뉴스 수용자 개인이 지각하는 뉴스 메시지의 내용과 질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동안 뉴스 미디어 내용분석을 통해서 일반화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여, 뉴스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에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범위는 위기지각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뉴스 미디어 신뢰도와 관여도 등의 주효과들과 상호작용효과의 구체적인 방향성(회귀계수의 부호)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위기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관여도가 얼마나 유의미하게 조절하는가를 보는 것에 한정된다. 그리하여 뉴스 수용자의 뉴스 내용과 질에 관한 주관적 지각을 측정하고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 데에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미디어의 특성에 따라 일반화되어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한 '뉴스의 내용과 질'에 따라 결정되며, 또한 뉴스의 내용과 질에 따라 뉴스 수용자들이 위기지각을 형성한다고 하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뉴스 미디어 신뢰도와 위기지각 사이의 상관관계는 '허위상관'일 수 있으며, 따라서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문제가 있게 된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뉴스 메시지의 내용과 질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통제하여 연구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일정 기간 동안의 뉴스 내용분석이 아니라, 조사 응답자 개인이 특정 위기에 관한, 특정 뉴스 미디어에 대해, 그리고 특정 보도에 관한 주관적인 내용과 질에 관한 지각/평가를 효과적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뉴스 내용과 질에 대한 주관적 지각/평가를 통계적으로 통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구 모형에 주요 변수로 활용하여 위기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해볼 수도 있겠다.

본 연구의 또 다른 한계는 연구의 현실적 여건상 관여도를 중심으로 뉴스 수용자의 특성을 설명하였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를 탐색/확인하여 그 변수들이 뉴스 미디어 신뢰도가 위기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얼마나 효율

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가령, 그루닉과 헌트(J. Grunig & Hunt, 1984)의 상황이론 중에서, 문제인식 요인이나 장애인식 요인 등도 공중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충분히 유용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여도'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적으로 정보처리에 관한 '동기'를 조작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측정되면 개념 측정의 타당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는 연구대상을 20대 초반 위주의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연구의 외적 타당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연구 상황이 미국내의 테러위기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국내에 적용하는 것에도 역시 외적 타당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 참고문헌 ■

- Chaiken, S. (1980). Heuristic versus systematic information processing and the use of source versus message cues in persua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752~766.
- Chaiken, S., Liberman, A., & Eagly, A. H. (1989). Heuristic and systematic information processing within and beyond the persuasion context. In J. S. Uleman & J. A. Bargh (Eds.), *Unintended thought* (pp. 212-252). New York: Guilford Press.
- Fischhoff, B., Slovic, P., & Lichtenstein, S., Read, S., & Combs, B. (1978). How safe is safe enough? A psychometric study of attitudes toward technological risks and benefits. *Policy Sciences*, 9, 127~152.
- Fischhoff, B., Watson, S. R., & Hope, C. (1984). Defining risk. *Policy Sciences*, 17, 123~139.
- Fiske, S. T., & Taylor, S. E. (1991). *Social Cognition* (2nd ed.). New York: McGraw-Hill.
- Gaziano, C., & McGrath, K. (1986). Measuring the concept of credibility. *Journalism Quarterly*, 63, 451~462.
- Grunig, J. E., & Hunt, T. (1984). *Managing public relations*.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2003, March). Project on biological security and

- the public. Retrieved May, 1, 2003, from <http://www.hsph.harvard.edu/press/releases/blendon/biosecuritytopline.doc>.
- Hass, R. G. (1981). Effects of source characteristics on cognitive responses and persuasion. In R. E. Petty, T. M. Ostrom, & T. C. Brock (Eds.), *Cognitive responses in persuasion*. Hillsdale, NJ: Erlbaum.
- Howell, D. (1999). Why newspaper credibility has been dropping. *American Editor*, 74(1), 4~14.
- Margolis, H. (1996). Dealing with risk: Why the public and the experts disagree on *environmental iss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cCallum, D. B., Hammond, S. L., & Covello, V. T. (1991). Communicating about environmental risks: How the public uses and perceives information sources. *Health Communication Quarterly*, 18(3), 349~361.
- McComas, K. A., & Trumbo, C. W. (2001). Source credibility in environmental health-risk controversies: Application of Meyer's credibility index. *Risk Analysis*, 21(3), 467~480.
- McComb, M., & Reynolds, A. (2002). News influence on our pictures of the world. In J. Bryant and D. Zillmann (Eds.),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pp. 1-18).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eyer, P. (1988). Defining and measuring credibility of newspapers: Developing an index. *Journalism Quarterly*, 65, 567~574, 588.
- Petty, R. E. (1994). Two routes to persuasion: State of the art. In G. d'Ydewalle, P. Eelen, & P. Bertelson (Eds.), *International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Vol. 2, pp. 229-24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Petty, R. E., & Cacioppo, J. T. (1979). Issue Involvement can
- Petty, R. E., & Cacioppo, J. T. (1981). *Attitudes and persuasion: Classic and contemporary approaches*. Dubuque, IA: Wm. C. Brown.
- Petty, R. E., & Wegener, D. T. (1999). The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Current status and controversies. In S. Chaiken & Y. Trope (Eds.), *Dual process theories in social psychology* (pp. 41-72). New York: Guilford Press.
- Petty, R. E., Priester, J. R., & Brinl, P (2002). Mass media attitudes change: Implication of the Elaboration Likelihood Model of persuasion. In J. Bryant and D. Zillmann (Eds.), *Media effects: Advances in theory and research* (pp. 155-198).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Polling the Nations. (2003a). Terrorism. Retrieved from May, 1, 2003, from

- <http://poll.orspub.com/poll/lpext.dll?f=templates&fn=main-h.htm>.
- Polling the Nation (2003b). Media. Retrieved May, 1, 2003, from <http://poll.orspub.com/poll/lpext.dll?f=templates&fn=main-h.htm>.
- Risk World (1997, January). Framework for environmental health risk management. Retrieved April, 10, 2003, from <http://www.riskworld.com/Nreports/1997/risk-rpt/epajana.htm>.
- Rouner, D., Slater, M. D., & Buddenbaum, J. M. (1999). How perceptions of news bias in news sources relate to beliefs about media bias. *Newspaper Research Journal*, 20(2), 41~51.
- Sandman, P. M., Lanard, J. (2003, February 19). *Duct tape risk communication*. Retrieved May, 1, 2003, from <http://www.psandman.com/col/ducttape.htm>.
- Slovic, P. (1992). Perception of risk: Reflections on the psychometric paradigm. In S. Krimsky & D. Golding (Eds.), *Social theories of risk* (pp. 117-152). Westport, CT: Praeger.
- Slovic, P., Fischhoff, B., & Lichtenstein, S. (1979). Rating the risks. *Environment*, 21(3), 14-20, 36~39.
- Slovic, P., Fischhoff, B., & Lichtenstein, S. (1985). Characterizing perceived risk. In R. W. Kates, D. Hohenemser, & J. Kasperson (Eds.), *Perilous progress: Technology as hazard* (pp. 91-123). Boulder, CO: Westview.
- The White House (2003, February 19).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launches citizen preparedness campaign*. Retrieved May, 1, 2003, from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3/02/20030219-11.html>.
- The White House (2003, April 8). *Securing the homeland: Protecting our states and cities*. Retrieved May, 1, 2003, from <http://www.whitehouse.gov/news/releases/2003/04/20030408-5.html>.
- Trumbo, C. W. (2002). Information processing and risk perception: An adaptation of the heuristic-systematic model. *Journal of Communication*, 52(2), 367~382.
- Trumbo, C. W., & McComas, K. A. (2003). The information of credibility in information processing for risk perception. *Risk Analysis*, 23(2), 343~353.
- Tyler, T. R., & Cook, F. L. (1984). The mass media and judgments of risk: Distinguishing impact on personal and societal level judg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4), 693~708.

(최초 투고일 2003년 8월 1일)

**The Effect of Perceived Credibility of the News Media on
Risk-Related Perceptions:
Involvement in Risk as a Moderator of the Effect on Risk-Related
Perceptions**

Seong-Kwan Yang

Professor

Dept. of Advertising, DongKang College

Sung-Un Yang

Doctoral Student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USA

The main purpose of the current study is to explore the role of individual involvement in risks as a moderator of the effect of perceived source credibility of the news media on risk-related perceptions. Additionally, this study aims to predict the extent to which the message recipients use the news media to process information to form and change their risk-related perceptions, exploring several predictor variables such as the news media credibility, level of involvement, their interaction, media type, sex, and age in sequential multiple regression models. For these purposes, the researchers focused on the research context of the current risk of a potential terrorist attack in the United States after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 Survey was the main method to collect the data, and survey participants were college students (n=186) taking a basic communication course in a university in the vicinity of Washington DC. To sum up the results, the results of MANCOVA and related multivariate analyses indicated that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of the news media credibility across the news media examined on this study (i.e., local TV news, newspaper, and the Internet) by non-chance amount. When sequential multiple regression models were analyzed to predict the two dimensions of terrorism-relevant risk perceptions (i.e., feeling of dread and feeling of uncontrollability), the moderating effect of involvement was significant on the effect of the news media credibility on the risk perceptions with disordinal interaction effect. Finally, in a sequential multiple regression model to predict the media use for information processing of a terrorist attack, both predictor variables such as the news media credibility and involvement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additional predictor variables such as the degree of risk-related perceptions and age. The implication and the limitation of the current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Perceived Source Credibility of the News Media; Risk Perceptions; Individual Involvement; Risk Communication